

# “文대통령 백신 바꿔치기” 허위글 유포...경찰, 본격수사

### 신승목 대표 고발인 조사 받아...수사 착수 일부 네티즌, 주사기 바꿔치기했다고 주장 지난달 23일 대통령 백신 접종 당시 논란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허위 글 유포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신 대표는 지난달 25일 디시인사이드, 에뮬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당시 주사기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한 네티즌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이날 초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자신의 SNS에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며 불필요한 국민분열과 사회혼란

을 불러일으키는 반국가적 중대 범죄 이기에 엄중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인이 특정되지는 않았다”며 “추후 조사를 진행해 피고발인이 특정된 이후 혐의 유무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백신 접종 과정에서 녹화 방송으로 공개된 장면에서는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AZ 백신에서 백신을 추출(분주)한 뒤 백신과 뚜껑을 뺀 주사기를 들고 가림막(파티션) 뒤로 갔다가 다시 나와 대통령에게 접종했다. 이때 대통령에게 접종하기 직전 주

사기에 뚜껑이 씌어져 있어서 ‘리캡’ 논란이 발생했다. 주사기 캡을 열고 백신을 추출했는데 가림막 뒤에 갔다 온 뒤에 다시 캡이 씌워져 있는 건 자연스럽지 않고 가림막 뒤에서 주사기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 백신 접종에 관해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 뽑고 파티션 뒤로 가더니 캡이 닫혀 있는 주사기가 나온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4일 관련 게시물에 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에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을 책임 관사로 지정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의 백신 바꿔치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위 글을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서선욱기자



영업종로 안내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 연장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 점포에 영업종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용산구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주최로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를 가졌다.

## 광주·전남 전동킥보드 사고 매년 증가...머리·얼굴 부상 많아

### 장기윤 의원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안전 수칙 준수”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증가한 가운데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머리·얼굴 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장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경찰청과 한국소비자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2017년 3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18년 15건·16명 부상, 2019년 18건·21명 부

상으로 해마다 늘었다. 전남은 2018년 2건·2명 부상에서 2019년 8건으로 증가해 8명이 다쳤다. 타 지역은 서울이 2017년 29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4.6배 증가했으며 부산 8건에서 14건, 대구 9건에서 25건, 인천 4건에서 19건, 대전 8건에서 11건, 울산 0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 또 경기지역이 27건에서 122건, 강원 5건에서 6건, 충북 7건에서 19건, 충남 3건에서 14건, 전북 2건에서 7건, 경북 6건에서 7건, 경남 3건에서 7건, 제주 3건에서 4건으로 늘

었다. 지난 2019년 기준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를 조사한 결과 머리와 얼굴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팔·손·다리가 뒤를 이었다. 장기윤 의원은 “최근 공유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고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용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외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각 지자체와 경찰은 이를 감안해 개인용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안전수칙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동채본부

## 전남일대서 마약 투약·판매한 태국인 4명 구속

전남 일대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태국인 4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공급책 태국인 A(30대)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들로 전남 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과 신종 마약인 ‘아바’ 등을 투약하거나 외국인 선원 2

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국정원과 공조해 마약류 공급책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추적, 지난 2일 집단 투약을 위해 광주시의 한 원룸에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g과 아바 200알, 대마초 등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이 압수한 신종 마약 ‘아바’다. 오유나기자

## 차사고 조치 중 서로 폭행한 견인차·보험사 직원 입건

광주 남부경찰서는 13일 시비중 상대방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폭행·재물손괴)로 견인차 운전자 A(25)씨와 A씨를 때린 보험사 직원 B(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

께 광주 남구 봉선동 모 음식점 주차장 앞에서 시비가 붙은 보험사 직원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B씨 승용차 앞 유리를 파손한 혐의다. B씨도 A씨를 밀치는 등 상호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사고

후속 조치를 하던 도중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비 도중 공구를 이용해 B씨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